News p/4

'무능 바이러스' 감염됐나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제3236호 www.metroseoul.co.kr

Economy p/8

금융권,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

동아일보 논설 주간 황호택 칼럼 – '김영란법 대신 허문도법'

"네이버와 다음이 인터넷 사이비 언론에 공동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청와대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5년 6월 10일 동아일보 게재

허문도의 재림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朴정권, 극우 언론인 손 빌려 인터넷언론 새판짜기 돌입한 듯
일부 극우 매체 중심 '포탈 뉴스제휴권' 장악 기도 노골화
"언론사 범람, 사이비언론 척결" 5共 언론탄압 논리와 동일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두고 5공화국 허문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재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보수 메이저신문인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평가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지난 10일자 칼럼에서 "5공의 언론 통폐합은 사이비 언론 정리를 핑계로 기자를 대거 해고하고 언론사를 순치시키려는 조치였다"면서도 "지금의 언론 풍토에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허문도법'(언론통폐합 조치)이 필요하다는 자조가 언론계에서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황 주간은 "노무현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을 말려 죽이기 위해 인터넷 언론과 무료신문을 육성하는 정책을 썼다"며 "그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인터넷 뉴스매체들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는 우후죽순 생겨난 매체들에 대해 "기업들을 괴롭히고 건강한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듣보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듣보잡 정리 작업을 청와대 비서관 한 명과 두 포털의 주문을 받은 언론단체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황 주간이 언급한 두 포털이란 업계 1·2위인 네이버와 다음이다. 두 포털은 지난달 28일 갑작스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언론계 판단에 맡기겠다며 '공개형 뉴스평가위'를 구성해 달라고 언론에 제안했다. 황 주간이 말한 듣보잡 언론의 정리가 두 포털의 명분이었다.

황 주간은 "네이버와 다음의 인터넷 매체 정리 시도는 80년 언론기관 통폐합을 연상시킨다"며 허 전 비서관의 언론통폐합 명분을 소개했다. 허 전 비서관은 5공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난립으로 사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경영주가 있고, 그런 관계로 사이비 기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언론사나 종사원은 사회적으로 기생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80년과 2015년의 논리는 동일하다. 돈벌이 걱정 없는 기득권 언론만 생존할 가치가 있다는 논리다. 다원사회의 언론 다양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다.

황 주간은 "(두 포털의 제안에는) 민 비서관의 막후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인터넷 매체 문제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차관보와 홍보협력관제는 실무조직이 없는 청와대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의춘 국정홍보차관보는 민 비서관 밑에서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냈다.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한 극단적 칼럼과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친기업 옹호 칼럼으로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신문협회가 주목된다. 민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내내 협회장을 연임했다.

보수 메이저 신문들은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 비서관을 허 전 비서관에 빗댄 동아일보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민 비서관과 뉴라이트 운동을 함께 했다. 황 주간은 "두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기사) 전재료 인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쓰레기 청소' 부담만 지운다는 불만이 일부 언론단체에서 나온다"고 했다. 소위 메이저신문들과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 간의 갈등의 핵심은 기사 전재료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 상황에서 극심한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개편을 두고 청와대가 극우 인터넷 매체를 앞세우고 보수 기득권 언론의 동조 하에 5공식의 포털 새판짜기에 나섰다고 의심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민 비서관은 언론에 "전혀 사실무근이다. 기업의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동아일보)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도 청와대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허문도 전두환 청와대 비서관

한민구 "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발전시켜야"

'탄저균 실험 논란' 주피터 프로그램 첫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와 탄저균 투명성 요구 전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처음으로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내 항공의무전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시설을 방문한 다음 미7공군사령부의 항공의학전대를 찾아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치 경과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피터 프로젝트은 미 국방부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2012년 11월 수립해 추진해 온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사실이다.

한 장관은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이 있고 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호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유와 (실험과 반입 등의) 절차 투명성이 더 잘 협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주피터 프로젝트을 통해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용산·평택에서도 실험을 진행했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 요원 22명이 노출됐으나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실험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에 동참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주피터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주피터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 추정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탄저균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국방부 제공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BSP는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은 애초 오산기지와 미국 내 9곳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호주와 영국 등 60여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탄저균 오배송에 대한 미 국방부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도쿄서 '전쟁법안 반대' 대규모 집회 14일 일본 의회 청사 앞에서 '전쟁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약 2만5000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탈북자 방지용? 북한 MDL에 지뢰매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두 달째 지뢰매설과 표식물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 우리 군은 해당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한군이 서·중·동부전선의 MDL 근처에서 근접 정찰과 작업을 하고 있다"며 "MDL 침범 등에 대비해 일선 경계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군이 그간 귀순했던 일부 전선의 MDL 근처에서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북·중 국경지대 뿐 아니라 MDL 지역에서의 탈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남측으로 귀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씩을 조를 이뤄 MDL 군사표식물을 확인하고 쓰러진 표식물을 바로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나 콘크리트에다가 MDL 위치를 표기해 놓은 표식물은 정전협정에 따라 임진강 말도에서부터 동부전선 끝단까지 MDL내 200~300m마다 1개씩 모두 1292개가 세워져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

野, 처벌 조항 포함 '제2의 황교안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황교안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임 자료 공개 문제로 황 후보자와 대립한 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바 있다.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되자 야당 측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황교안 방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내역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하고 미제출 시 처벌조항이 없는 등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모호한 제출범위를 정확히 해 자문사건까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인사청문 대상이 된 현직 장관·고위 공무원의 사퇴 의무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도 손질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장기 표류 중인 후보자 사전검증제도 논의도 재점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2013년 1월 원혜영 대표발의), 공직 후보자에게 가족관계·병역·재산형성 등에 관한 '사전질문서'를 작성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안(2013년 4월 박영선 대표발의), 업무 능력·정책 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 내 거짓 기술이 밝혀질 경우 사퇴하도록 하는 안(2014년 8월 황주홍 대표발의) 등이 최우선 재추진 대상으로 정책위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법안 또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제2의 황교안 방지법' 추진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불거져 나온다. 한편 황 후보자 인준은 새누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이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수장들이 웃던 날… 국민은 떨고 있었다

메르스 고비때마다 무감각 처신 논란
누리꾼들 "다른 나라 사람인 듯 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고비 때마다 나타나는 국정 책임자들의 무감각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공감능력 부족을 넘어 통치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남보건소를 방문해 방호복을 입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일 현재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구본영 천안시장과 함께 웃는 모습이 당시 동행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 애초 취지는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 체험을 통해 의료진의 어려움을 공감해보자는 것이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 댓글에서 "뭐가 좋아서 저렇게 환하게 웃는지 참 한심하다"고 했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 총리대행 곁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안 지사의 표정이 난감해 보인다"고 했다.

최 총리대행이 웃던 날 충북대병원에서는 10번째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 인근 대전의 건양대병원에서 감염됐던 환자다. 또 이날은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2차 유행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첫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여수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직전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바이오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이앙기를 시연하자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일정을 다 집어치우고 대책세우고 지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진짜 이 건(혼자 신나 웃는 모습은)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이 사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오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수명이 한 20년은 깎여 나가는 느낌"이라는 반응과 "다른 나라 사람인 듯(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바이오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이앙기에 올라 핸들을 잡아보고 있다. (아래)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남보건소를 방문, 방호복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메르스 사망자는 두 자리 수인 10명으로 늘었다. /뉴시스

슬로바키아서 메르스 의심 한국인 남성 입원

한국인 남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증세로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병원에 입원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병원 관계자가 밝혔다.

이 남성은 슬로바키아 북부 질리나에 있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 3일 입국했다.

확진 여부 판정은 14일 체코 프라하 연구소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슬로바키아는 한국보다 7시간 늦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페트라 스타노 마타소브스카 브라티슬라바 대학병원 대변인은 "병원에 입원한 한국인은 38세의 남성으로 설사와 고열, 피부병변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병원에서 혈액샘플을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연구소로 보냈고 일요일(1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안정된 상태"라고 했다.

페테르 부블라 슬로바키아 보건부 대변인은 "환자는 경찰 보호 하에 앰뷸런스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특수시설에 옮겨진 뒤 다른 환자들로부터 격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고리원전 앞에 폐로 환영 플래카드 14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도로변에 지역 주민들이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사진 상단 맨오른쪽) 폐로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고리 1호기 가동 영구 중단을 권고했고, 한수원은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

"메르스 책임자 필벌"… 벼르는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9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전염병을 확정하고 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메르스가 적기에 빨리 진압될 수 있었는데도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책임 지울 일은 지우고 보강할 일은 보강해서 국가 전체적인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가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게 됨에 따라 김무성 대표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근래 메르스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81번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경유한 부산의 한 국밥집에 자신의 딸과 손주, 인근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발언, 가게 방문을 장려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보건소 등을 찾아 병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을 격려 방문해 의료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행보가 일종의 이미지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쇼'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메르스로 정국이 불안한 이때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현장 방문을 회피하는 당국 관계자들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평가도 많은 추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이어 내림세를 보이며 메르스 사태 속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8%로 2주 전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5% 포인트로 3월 1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메르스가 시작됐던 5월 4주차(7% 포인트)와 비교하면 18% 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에 대한 의견이 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朴정부·삼성병원 무능바이러스 동병상련

靑, 메르스발생 12일만에 대책반 구성… 초기 진화 실패
삼성서울병원, 감염자 관리 감독 부실… 최대 진원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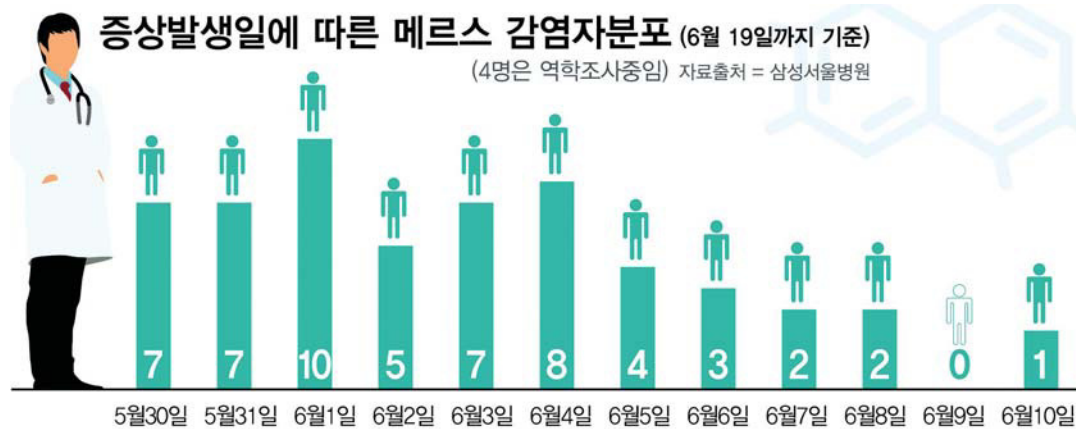
"한국에서 낙타를 어디서 보냐?, 낙타를 어디서 보냐?"

개그맨 박명수가 MBC무한도전의 무한뉴스에서 메르스에 대응하는 무능정부를 빗대어 한 소리다. 이 말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이유는 메르스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화를 키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왔기 때문이다.

평택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14일까지 24일 동안 무려 5000명에 육박하는 격리자와 145명의 환자 그리고 15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는 여전히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 메르스 대처에 대한 정부의 행적을 살펴보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 5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나오고 6일후인 26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수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6월 1일 대통령은 확진환자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앞서 그날 새벽에 보건복지부가 18명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열린 12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은 첫번째 3차 감염자까지 나온 날이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유럽에 출장을 갔고 3차 감염자가 처음 나온 날 대통령은 전남에 가고 총리 대행은 유럽에 가서 메르스를 총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모두 부재중이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 것도 이날부터다.

청와대 역시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 12일만에 긴급히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며 비서실 내에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따로국밥'으로 메르스를 관리해 오다 결국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2위의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14일 응급실과 입원실 등 병원 일부를 24일까지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일반 환자들의 불편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적 폐쇄조치를 두고 민관합동TF팀의 강력한 요구로 삼성서울병원이 마지못해 내린 결론이라는 인상이 짙지만 정부역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단 공개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으로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메르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감염자는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명백한 메르스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최대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으로 날아갔다. 병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감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메르스 감염자와 격리자 등 피해자들은 그 손해를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병원폐쇄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송요원으로 근무한 137번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12일 직·간접 노출자 164명을 1인실에 격리시켰고 52명의 직원들을 자택 격리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5월 30일~6월 10일까지 메르스 발현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확진 환자 72명 중 44명(62%)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했고 6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환자 발생이 급격히 줄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프 참조)

삼성서울병원은 24일까지 병원을 부분 폐쇄,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로 해 이른바 '슈퍼전파자'가 걸어서 이 병원 응급실 주변을 돌아다녔다. 또 삼성서울병원 의사 감염자는 자가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환자를 진료해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병원의 이같은 조치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그동안 국가 방역망의 열외 상태에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관리할 능력이 정부에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환자의 접촉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차단해 오는 방식으로 메르스 저지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않은 환자들의 연이은 출현은 정부의 메르스 방지 활동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 상태를 지역 사회 감염이 아닌 병원 내 감염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3차 유행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무능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시급해졌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텅빈 삼성서울병원 주차장 14일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재훈 병원장은 "이날부터 신규 외래·입원 환자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며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과 응급진료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산한 삼성서울병원 주차장. /연합뉴스

法 "실수로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교감 해임 가혹"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잘못 보낸 교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어느 날 밤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보낸 이는 몇 달 전까지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B교감이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에 20분쯤 후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알렸다. 결국 B씨는 해임됐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B씨의 친구도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돼 친해진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A씨가 받아들여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B씨가 30여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홍원기자 hong@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 '담임교사' 징역 5년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담임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A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5개월 동안 11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서울시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2회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다.

교육청은 오는 15~18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제2회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접수는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homedu.sen.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5~19일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현장접수가 실시된다. 외국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

시험은 오는 8월 5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종료시간은 ▲초졸 오전 11시 40분 ▲중졸 오후 2시 50분 ▲고졸 오후 5시 40분이다.

합격자는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홍원기자

"로스쿨 경력판사 능력 의문"

판사들, 로스쿨 출신 37명 첫 임용 앞두고 부정적 시선

내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37명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데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임용될 신임 판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 년 안된 경력이 전부라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마찰이 법원 내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판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으로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판사와 다른데다 연차가 낮아 경험도 없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을 냉대하기 보단 경험 면에서 부족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부족한 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보다 능력있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뽑는 경력판사 임용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도 "법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법원 업무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 혼자 심리하는 단독부에 보내기보단 당분간 경험 많은 선배 판사들이 업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C판사는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재판부)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합의부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망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경력판사들이 업무적인 부분만 숙달된다면 심리하는데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1기출신 D변호사는 "어떤 새로운 분야든 경험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법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능력있는 판사가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단기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상명대 사회봉사단 '… 러브챌린지' 참여 상명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들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MBC에서 방영된 'MBC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러브챌린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은 약 70여명으로 여러 학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생방송 중에 콜센터에서 후원자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상명대학교 제공

成 리스트 '키맨들' 처벌 관건

처벌 불가피 전망 속 수사협조 변수 작용 관심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 전 본부장을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한 전 본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1부도 한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주범이 사망했지만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 중 한 전 본부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성 전 회장이 리스트에 포함된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 전 본부장은 리스트 의혹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됐다.

실제 한 전 본부장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이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본부장이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성 전 회장의 금품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1)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인물이다.

단순 전달자라도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도 일관된 진술로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도운데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홍원기자 hong@

멸종위기종 풍란, 한려해상국립공원서 다시 피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풍란 500개체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에 옮겨 심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꼬리난초'라고도 불리는 풍란은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노끈 모양의 굵은 뿌리가 바위나 나무 표면에 붙어 자란다. 7~8월에 3~5개의 하얀 꽃이 핀다. /연합뉴스

지자체 시설공단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서울시설공단 본부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오성규)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체계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선진 안전관리 기법이다.

그동안 일반 건설사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은 있었으나, 지자체 발주처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인증은 최근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지자체의 첫 인증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 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인증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치선기자

'메르스'가 삼킨 주말… 전국민 움츠려

거리·놀이공원 인파 '뚝'… 마스크 착용 일상화
백화점·대형마트 발길 줄고 온라인몰 매출 급증

1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파라솔이 백사장에 펼쳐졌으나 이용자는 적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조기개장 둘째주말(7만명)보다 적은 3만명의 피서객이 해운대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공포로 인해 거리에 차량과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줄며 대한민국 전체가 숨죽인 모습이다.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놀이공원과 영화관을 찾는 발길도 끊겼다.

서울대공원은 주말이면 3만명이 찾았던 곳이지만 14일 불과 5000여명만 찾아 나들이를 즐겼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6월 초에 개장한 해수욕장도 울상을 짓고 있다. 5월말 한여름을 방불케할 정도로 뜨거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전국 극장도 관객들이 외면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극장에 556만257명의 관객이 찾았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로 인해 이달 들어 13일 현재 61만2604명이 찾았으며 관객점유율도 12.9%를 기록해 지난달의 31.5%보다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나들이가 줄며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도 줄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께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과 들어온 차량을 모두 각각 16만여 대로 집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이동 차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요일 같은 경우 보통 전국 교통량이 370만대에 이르는데 오늘은 333만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다양한 이색 풍경도 만들어지고 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스크착용 모습은 일상화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가와 식당 등 외식업계에선 손 소독제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상품이 됐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들과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은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 관리용품은 메르스 사태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최근에는 평택의 한 예식장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하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결혼 축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대 앞에서는 마스크를 낀 여학생들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여대앞 마스크부대 출몰'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마스크 등을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며 G마켓에선 이달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마스크를 비롯해 세정제와 세정용품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522% 증가하는 등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 등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행사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시식을 통해 타인의 분비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식당가와 푸드코트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이 마스크를 쓰도록 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출근 시 체온 체크를 시행, 미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귀가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대중이 몰리는 장소로 나가는 것조차 기피하며 유통업체들은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난 1~8일 롯데마트 전지점의 매출은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평택, 수원 지점에서의 매출은 -14.3%를 기록했다.

밀집 장소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외식업계는 물론 개인 식당까지 매출이 떨어졌지만 회식을 뒤로 한채 일찍 귀가하며 집근처 편의점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비타민과 홍삼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 과일과 홍삼 등이 들어간 건강음료 판매량이 급증한 것도 메르스가 낳고 있는 이색 풍경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집 살때 인터넷서 정보 얻는다

평균 6곳 매물 확인
1개월가량 정보 수집

이사를 위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곳의 매물을 직접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벼룩시장부동산이 20대 이상 온라인회원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4.9%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정보지(32.1%), 중개업소(26.6%), 가족·동료·친구(5.5%)등의 순이었다.

최종 계약 전 직접 살펴보는 매물의 수에 대해서는 46.8%가 '5곳이상 10곳 이하'의 매물을 본다고 답했다. 5곳 이하는 33.9%, 20곳 이하는 13.8%였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정보를 얼마간 수집 후 계약을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9%가 '1개월 가량 정보 수집 후 계약'을 꼽았다. 전·월세 등의 임차거래의 경우에도 '1개월 가량' 정보를 수집 후 계약'을 진행한다는 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매매거래와 임차거래 사이에 부동산 정보 수집 기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매매가격에 비해 임차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중개업소의 수는 '2~3곳'이 3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5곳'(34.9%), '5곳~10곳'(21.1%), '1곳'(3.7%), '10곳 이상'(1.8%) 이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48.6%가 '마음에 드는 좋은 매물을 찾기가 힘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최종 계약 시 잘못 될까 겁난다'(26.6%),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이 아깝다'(15.6%), '이사를 하는 것이 힘들다'(9.2%)는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이사 갈 집을 살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63.3%가 '집의 전체 구조', 17.4%가 '건물의 노후 정도'라고 답했다. 이사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1.5%가 '지역이나 위치'라고 답했으며 이 밖에 금액(37.6%), 교통(16.3%), 집 크기(5.5%) 순이었다. /김형석기자

해외수주 7천억 달러 시대… 문제는 산적

글로벌 건설산업 경쟁력 하락… 지역 다양화·경쟁력 강화 필요

우리나라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저가수주에 따른 출혈 경쟁 심화와 절반에 달하는 중동 편중 현상,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은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건설 수주 누적액은 6996억 달러다. 지난 4일 삼성물산이 계약을 체결한 호주 웨스트 코넥스 고속도로 프로젝트(6억9000만 달러)의 결과 보고가 접수되면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앞서 현대건설이 지난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540만 달러에 수주한 이후 50년 만에 쾌거다.

해외수주 초창기에는 누계 수주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27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2013년 12월 60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년 6개월 만에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8년 1억1200만달러 수주에 성공해 준공한 베트남 카이멥 항만터미널(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포스코건설 제공

총 14개의 세부지표 중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다.

이어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에서 건설시장규모(10위→11위), 건설제도(10위→13위), 인프라(10위→11위) 등의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올해 해외 실적도 하락세다.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올해 해외수주액은 234억6631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그간 총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동지역의 실적이 급감했다. 이 기간 중동지역 수주액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68억 4893만 달러에 그쳤다.

또 해외업체가 국내 건설사의 국내 입찰 담합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된 건수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입찰 담합을 이유로 해외 경쟁사들의 문제제기가 5건이었다.

이들 해외업체는 수주 경쟁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나 입찰경쟁 승리 후 마지막 가격협상 등의 과정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사 한 해외수주 담당자는 "국내에서 적발된 담합 사건을 해외 경쟁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근에도 국내사가 유리한 낙찰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사가 갑자기 해외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며 "경쟁사들이 국내 담합사건을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공종과 지역 다양화와 투명성 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들은 현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2015년 3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우수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사)벤처기업협회는 우수한 벤처기업의 인재를 공동으로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이란?

매출액, 성장성, 연봉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벤처기업의 채용정보를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신입사원 기준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벤처기업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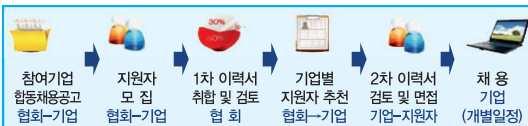
벤처전문취업포털 브이잡(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지원자격

대학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모집일정

2015.06.10(수)~2015.06.26(금)

채용절차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E-mail : job@v-job.or.kr

- 3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

▶ 선도벤처기업관 ◀

기업명	주생산품	매출액	업종/분야	직원	지역	모집내용
㈜제이브이엠	자동화기기	84,500백만원	제조	360명	대구	IT개발/설계/연구신뢰성/회계/제품인증/서비스엔지니어 0명
㈜선인	식물성크림,프리믹스	66,000백만원	식품가공	130명	충남	자재관리(용인)/생산관리(밀양) 0명
㈜슈프리마	생체인식 보안제품	51,900백만원	제조/통신장비	163명	경기	해외영업, Tech Writing, Market Research & Analysis 0명
㈜가온아이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32,206백만원	서비스업	159명	서울	ICT 솔루션 영업 0명
㈜인터콘시스템스	제어시스템의 개발 및 공급을 주 사업 영역	15,430백만원	전기전자제어	64명	경기	H/W개발, S/W개발, 기계설계, 기술관리, 영업 0명
㈜와이즈넛	검색솔루션	15,407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38명	경기	검색솔루션 구축 및 웹개발, 온라인 광고개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 0명
㈜씨너스	CCTV솔루션	14,900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24명	서울	영업관리/판매 및 물류 및 재고관리/영업지원 0명
㈜위세아이텍	패키지소프트웨어	14,000백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146명	경기	BI,데이터관리,SW개발,프로젝트관리 0명
㈜일성에프에이	자동화장비	13,300백만원	기계설비/제조/도매	67명	경기	열 자동화장비 설계/제조지원/경영지원팀 구매담당 0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소프트웨어개발	10,576백만원	서비스	155명	서울	솔루션 기업 해외사업팀 0명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개발	12,000백만원	서비스	120명	서울	소프트웨어개발(JAVA,JSP,JAVA SCRIPT) 0 명
빛기술㈜	반도체 관련장치	10,653백만원	기계 기계설비	41명	경기	기계설계 0명
㈜청우테크	분산제, 접착제	10,000백만원	제조	10명	충북	화공/화학/고분자 계열 0명
㈜유니텍	시뮬레이션,시뮬레이터,S/W개발	9,767백만원	서비스 외	73명	서울	항공관제시스템 S/W개발 및 DB서버개발, 군 관련 S/W개발 0명
㈜사이버다임	소프트웨어	7,200백만원	서비스	92명	'서울	IT법인영업 0명

▶ 우수성장기업관 ◀

기업명	주생산품	매출액	업종/분야	직원	지역	모집내용
㈜스피덴트	의료기기	9,976백만원	제조업	76명	인천	생산관리/해외영업/연구소 0명
㈜엔젤	전기녹즙기,기어	8,731백만원	제조	85명	부산	기계,기구,금형 설계/특허출원/연구기획 0명
㈜코펙스	자동제어 밸브 제조	8,563백만원	기계, 설비	32명	인천	해외영업/설계/개발/기계조립 0명
㈜이다	금속제창	7,058백만원	제조	18명	경기	영업/관리/연구개발 0명
㈜제이디솔루션	초음파/지향성 스피커	6,000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25명	서울	국 · 내외 영업 신입, 경력직 모집 0명
㈜비전정보통신	CCTV제조,출입통제시스템,보안네트워크 프로그램	4,085백만원	건설/토목	10명	경기	CCTV 설치 현장직 사원 모집 0명
㈜인라이플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4,000백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4명	서울	JAVA 개발자/영업관리/온라인영업 0명
㈜한울솔루션	리눅스 클러스터 서버 납품 및 기술지원	4,000백만원	컴퓨터/하드웨어/장비	10명	서울	서버/병렬 클러스터(Linux)/Windows Server 엔지니어 0명
㈜스마트어스	악성코드감염예방시스템,데이터분석솔루션	2,578백만원	정보보안	18명	서울	보안개발자(C/C++,Network Programming) 0명
로버무트㈜	시스템통합,인터넷보안컨설팅,SW개발공급	2,025백만원	IT/정보통신서비스	15명	서울	보안엔지니어(서버/네트워크),관리팀(경영지원) 0명
㈜하우동천	화장품제조/판매/쇼핑몰운영	1,886백만원	화장품	20명	서울	무역/해외영업/마케팅/광고/홍보/PR 0명
㈜케이피엘	배관스풀,산업용 기계설비 플랜트 설비 유지보수	1,809백만원	제조업/서비스	11명	전남	스쿠터 및 전기 관련 설계/시제품 제작/연구원 0명
아론비행선박산업㈜	수면비행선박(WIG Craft)	5,300백만원	제조	31명	경남	B-TYPE 위그선 R&D 0명
㈜씨에스이노베이션	스테인레스표면처리	1,100백만원	제조업	10명	경기	생산직 사원모집-도금기 조작 0명
㈜5민랩	게임소프트웨어	200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8명	서울	게임개발(응용프로그래머) 0명

▶ 연봉우수기업관 ◀

기업명	주생산품	매출액	업종/분야	직원	지역	모집내용
㈜한국정보기술단	정보시스템감리	8,647백만원	서비스	126명	서울	IT 전문인력(정보보안/제안팀원) 채용 0명
태성디에스티㈜	반도체장비/자동화장비	8,021백만원	제조	11명	경북	기계설계 0명
㈜지노이드	산업용센서개발/엔지니어링/판매	7,000백만원	전기전자제어	23명	서울	회로설계/생산 및 엔지니어링 0명
비앤에프테크놀로지㈜	플랜트 감시/제어/예측/진단 솔루션	6,631백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93명	대전	SW영업/개발/테스트/엔지니어링 0명
㈜모니터랩	웹방화벽,DB접근제어,Volp방화벽	5,300백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64명	서울	연구소 웹 개발자 모집 0명
㈜웨인테크놀로지	금융관련 솔루션 외	4,500백만원	IT	50명	서울	금융비지니스분야-웹프로그래머 0명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광고대행	4,050백만원	서비스	18명	서울	광고기획 AE 0명
데이텍㈜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	4,000백만원	서비스	32명	서울	컨텐츠 운영개발 프로그래머 0명
㈜아이티브레인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3,700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16명	서울	시스템엔지니어 0명
㈜지케스	통합망관리, 전산실에너지관리솔루션	3,132백만원	소프트웨어/솔루션/ASP	27명	서울	Java, JSP 웹 개발 0명
㈜디오티스	컨텍센터솔루션	2,800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	48명	서울	솔루션구축,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0명
구우정보기술㈜	ERP/패키지	2,795백만원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45명	서울	응용프로그래머/웹프로그래머 0명
㈜아이지	교육훈련장비	9,000백만원	제조도소매	38명	경기	기술영업(전기/전자/제어) 0명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	생명공학관련 장비,연구개발 제조	2,500백만원	의료,제약,바이오	44명	경기	전기전자/QA/광학개발/기계설계/SW개발 0명
㈜늑대와여우컴퓨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00백만원	제조	30명	경기	영업/온라인MD/AS/콜/마케팅 0명

금융권,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 두팔 걷었다

경기회복세 부진·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긴급운영자금 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 마련

금융권이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에 두팔을 걷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가 3680여명에 이르자 경기회복세 부진과 소비위축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인하부터 긴급운영자금 실시, 대출이자 유예, 우대금리적용까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운영자금-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영업상 차질을 빚는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 등 영업상 피해를 보는 기업은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과 기존대출금의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긴급운영자금은 업체당 20억원 한도 2년 이내에서 0.5%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할 예정이다. 기존대출 기한연장은 올해 7월이 만료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1년 이내에서 연장된다.

신한은행도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병원과 음식점, 호텔, 소매업, 여행사 등 메르스로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 당 5억원 범위내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만기연장도 지원될 계획이다. 만기연장시에는 최대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제공된다.

경남은행 지점에서 고객이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경남은행 제공

◆ 병·의원-숙박-여행업계 대상… "소비위축 우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은 메르스, 가뭄피해와 관련해 범(凡)농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격리자 ▲중소병·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의 관련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추가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긴급 저리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계는 1000만원 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에서 이용가능 하며 1.0%p 수준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출금 이자와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사고보험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규대출 지원과 기한연장 우대다. 신규대출은 총 3000억원 한도에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 1.0%p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우대금리(최대 연1.0%p)적용과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손세정제 배부부터 금리인하까지…"선제적 대응"

메르스 진단방법과 대응요령을 알려 피해를 방어하는 곳도 있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전 직원에게 메르스 주요 증상·진단 방법·대응요령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전달했다.

또 전행적인 비상연락망과 보고체계를 구축,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메르스 환자에 대한 병원의 리스트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직원이나 가족의 방문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금감원 Q&A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시 유의사항은?

Q. 얼마 전 그동안 가입한 보험내역을 정리하다보니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A.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여러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중복가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해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입 당시 비례 보상된다는 사실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포함)를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고액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중복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김민지기자 minji@

메르스 여파에 은행까지 '썰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은행들의 비대면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은행 고객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점포에 가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거래를 하면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손보업계, 3개월간 메르스 피해 中企 집중 지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손해보험업계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피해복구 자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금융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14일 손해보험협회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위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업계 차원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손보업계는 우선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대출만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과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과 피해복구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험가입조회와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보다 신속한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인수 시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관광·숙박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보험료 환급 시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준다.

장남식 손보협회 회장은 "메르스 사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험업계 차원의 지원가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웅섭 금감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 점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 우리은행 두산타워 지점을 방문해 주말 근무 중인 은행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아울러 인근 두산타워 상가와 평화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파악하고 격려했다.

이날 진 금감원장은 서민들의 금융 이용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메르스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별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금리 감면, 신규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보배기자

분양 뜸했던 부천, 4000여 가구 쏟아진다

15년 만에 최대… 중동신도시·옥길택지지구 맞불
서울-인천 가교점… 접근성 용이·가격도 저렴해

한동안 분양이 뜸했던 경기도 부천에서 상반기 마지막 달 4000가구 넘는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 한 달 공급량으로는 2000년 1월(4308가구) 이후 최대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부천에서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5곳, 4037가구다. 부천에서 2012~2014년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4376가구에 그친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지난 3년간의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셈이다.

부천은 서울 강서·구로·양천구와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 1·7호선을 통한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바로 다음이 부천IC일 정도로 차량 이용도 편리하다.

반면 매매가는 서울 새 아파트 전셋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4월 부천 중동에서 분양한 '부천 중동 스타팰리움'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3억2000만대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면적 전세가 3억6000만원보다 4000만원가량 싸다.

업계 관계자는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가교점에 있어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생활인프라도 풍부한 곳"이라며 "서울 전셋값 상승률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부천 분양시장에 관심을 갖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분양을 준비 중인 지역이 전통적인 주거 선호지역인 중동신도시와 신흥 주거지 옥길택지지구라 치열한 경쟁이 기대된다.

먼저 기존 도심인 중동신도시 인근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계열 아이앤콘스와 GS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아이앤콘스는 약대동에서 '부천 3차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69㎡, 전체 184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초·중·고교가 가깝고, 중동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과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쉽다.

GS건설은 상동에서 40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를 분양한다.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국철1호선 송내역이 도보 거리로, 중동신도시 송내역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부천-서울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연합뉴스

시흥 주거지인 옥길지구에서는 3개 단지가 공급된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해 주변 생활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지하철역(역곡역, 온수역)도 걸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 서남권과의 직선거리가 18㎞에 불과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호반건설이 '부천 옥길 호반베르디움' 1420가구를, GS건설이 '부천 옥길자이' 710가구를, LH가 공공분양 아파트 1318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준금리 인하에 부동산 시장 '활기'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인근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 밀집 지역 내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치인 1.5%까지 인하해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가계빚 폭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림 'e편한세상 삼척교동' 등 7개 단지 공급

| 주간분양 |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건설사들도 견본주택 개관을 연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13곳, 견본주택 개관 10곳 등이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림산업은 17일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서 'e편한세상 삼척교동'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84㎡, 전체 723가구다.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삼척중앙시장, 삼척의료원, 삼척버스터미널, 삼척시청, 삼척공설운동장, 삼척시평생학습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삼척초, 정라초, 삼척여중, 삼척고가 있다.

e편한세상 삼척교동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

대우건설은 1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 3-2블록에 공급하는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84㎡ 아파트 1316가구와 59~84㎡ 오피스텔 182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지구 내 레이시티몰, AK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부대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같은 날 화성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B1블록 '고양 삼송 화성파크드림 파티오'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59㎡, 전체 349가구 규모다. 하나로클럽, 신세계복합쇼핑몰(예정), 고양시립삼송도서관, 창릉천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동산초·고, 고양중·고가 인접했다. 고양대로, 삼송로, 통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원흥역과 삼송역을 이용할 수 있다.

중흥토건도 이 날 세종 2-1생활권 M2·L2블록에 짓는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M2블록 51~115㎡, 1076가구 ▲L2블록은 84~115㎡, 370가구다. 인근에 초·중·고 예정부지가 계획돼 있다. 정부종합청사, 백화점, 세종호수고원 등과도 인접했다. /박선옥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300조원 돌파

금리 인하·규제완화 여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300조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56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246억원 늘어났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 271조7535억원에서는 29조233억원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친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천452억원으로 지난달보다 7조9735억원 증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64.3%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4월 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40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수도권 가계대출은 460조4652억원으로 한 달간 전체 증가분의 59%에 달했다.

이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석 달째 10만건을 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한은도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1.50%로 1%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고 1~5월 누적 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후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위주로 재편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배기자 bobae@

국내 주식펀드, 그리스 이슈·메르스 확산에 '울상'

코스피가 이번주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과 메르스 확산 우려 등 대내외 악재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식형펀드가 지난 한 주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1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0.65% 하락했다.

소유형 기준으로 중소형주식(0.96%)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KOSPI200인덱스펀드가 한 주간 -1.21% 수익률로 가장 저조했고, 일반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가 각각 0.46%, 0.11% 하락했다.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펀드 1740개 중 547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수익률을 웃도는 펀드는 1079개였다. /김민지기자

증시 가격제한폭 ±30% 시대 열렸다

중·소형주 시장변동성 확대
개미 투자손실 위험 높아져
거래소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상품별 가격제한폭 변화

상품			현행	개선 1단계	개선 2단계	개선 3단계
주식시장			±15%	±30%		
파생상품시장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	±10%	±8%	±15%	±20%
		코스피200옵션	±15%			
		스타지수선물	±10%			
		섹터지수선물	±10%			
		섹터지수선물	±30%	±30%	±45%	±60%
	주식상품	주식선물	±15%	±10%	±20%	±30%
		주식옵션	±18%			

자료:한국거래소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확대된다.

상·하한폭의 확대로 시장은 효율성이 증대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로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기존의 동적변동성완화장치를 정적변동성완화장치로 변경했다.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를 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정적변동성완화장치로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게 한다. 또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로 발동할 수 있게 하여 전체장을 20분간 중단 또는 단일가매매로 재개 혹은 종료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가격제한폭 제도는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교적 상·하한가를 만들기 쉬운 ±15%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악용의 문제도 있었다. 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을 대폭 늘리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주는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변하며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는 가격 변동성이 대형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건'과 같은 악재가 터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 하락에 따른 기대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펀더멘털(기초여건)보다 높게 평가된 종목, 무분별한 테마 이슈에 급등한 종목 등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개별 종목 선택 시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소형주 중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한폭이 확대된 만큼 담보유지 비율에 따른 반대매매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 주가 하락 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가급변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전통시장 찾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증권가, 하반기 코스피 상향 조정

삼성證 2250·LIG 2300 등
4월 기록 연중 최고치 훌쩍

주요 증권사들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을 반영한 데다 하반기 중 재상승 시도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증권사가 하반기 증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종전 2150에서 2250으로 100포인트나 올렸다.

또 LIG투자증권(2200→2300), NH투자증권(2180→2260), 신한금융투자(2200→2230), 하이투자증권(2300→2350) 등도 30~100포인트를 높여 잡았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4월 종전 2050을 2200으로 올린 바 있다.

이들 증권사의 하반기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 상단은 대부분 지난 2011년 5월 2일 기록한 역사적 고점(2228.96)을 웃돌거나 적어도 지난 4월 23일(종가 기준)의 연중 최고치(2173.41)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지난해 보다 10%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이런 추정치를 반영하면서 코스피 전망치가 상승한 부분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롯데칠성, 호실적·액면분할 기대… 주가 날개

클라우드·순하리 인기 매출↑
證, 국내 주류업종 '최선호주'
거래소도 액면분할 장려나서

'황제주'로 불리는 롯데칠성이 올해 2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액면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칠성의 주가는 지난 3월 20일 165만5000원에서 이달 12일 253만2000원까지 급상승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중 신고가인 299만원까지 치솟아 3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롯데칠성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오 신영증권 연구원은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신제품 '처음처럼 순하리' 등 주류 사업의 호조로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을 11.6% 상회한 481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순하리는 출시 초기부터 구전 효과 덕분에 소비자 인지도가 구축돼 2분기 수익성 향상은 한 층 더 가시적"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롯데칠성을 국내 주류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심은주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롯데칠성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롯데칠성음료 레쓰비 카페타임 광고. /롯데칠성음료 제공

동기 대비 7.9% 증가한 6575억원, 영업이익은 40.1% 늘어난 458억원을 예상한다"면서 "소주 신제품 '순하리'의 판매 호조에 따른 주류 부문의 실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2분기 주류 부문 매출은 맥주 '클라우드'와 소주 순하리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는 주류부문 탑라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롯데칠성의 액면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재상장한 아모레퍼시픽이 액면분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액면분할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거래소도 고가주이면서 유동성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개별 기업과 면담할 때 액면분할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두 차례의 단체설명회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액면분할 기업 분석 결과, 개인 순매수가 늘어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수단이 넓어졌다"면서 "가계소득도 늘고 시장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미래전략 삼성에 필요한 건 '이건희 DNA'

공 들인 '사물인터넷' 구글 진출에 뿌리째 흔들

"도전정신 강조한 이건희 추진력만 계승해도"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 변화하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구축에 힘겨운 모습이다.

이 회장이 병석에 누운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삼성은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는 뚜렷한 수익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이 미래의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이 부회장은 전략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자체 개발한 타이젠 운영체제(OS)의 보급률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미래먹거리 준비 '글쎄'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삼성의 '원 오브 뎀'(여럿 중 하나)의 체질을 벗어나 '스페셜 원'(특별한 단 하나)을 구상하고 있다. 타이젠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완성해 미래먹거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삼성은 바다 OS 실패 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타이젠 OS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TV 등을 출시했다. '안드로이드-iOS-타이젠' 삼국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웨어러블 시장에서 타이젠의 보급률은 물론 고객사들도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타이젠의 올해 1분기 스마트워치 OS 시장점유율이 23.1%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타이젠은 작년 2분기 스마트워치 시장점유율 47.8%로 1위를 기록했지만 작년 6월 구글의 합류로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타이젠의 점유율은 작년 3분기 40%, 4분기에는 25.7%로 점차 하락한 데 이어 올 1분기엔 작년 2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안드로이드웨어 점유율은 작년 4분기 50%, 올 1분기에는 55.9%까지 올랐다.

또 타이젠의 글로벌 연합체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회원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타이젠 연합 회원사로 12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최근 10개사로 축소됐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타이젠폰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2분기 인도 내 타이젠 폰 누적 판매량은 100만대 돌파했다는 업계 추산이다. 하지만 올해 인도 스마트폰 예상 판매량이 1억2000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도 안되는 수치다.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이건희 회장 DNA 심어라

이 회장은 '결단력-추진력'을 앞세워 삼성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고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사업을 위기 속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세계 정상까지 끌어올렸다.

이 회장이 여러 사업에 흩뿌리기식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도 냉철한 결단력으로 거침없는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1980년대 이 회장은 후계자 시절 개인 돈을 들여 파산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도록 추진했다.

1993년 반도체 웨이퍼(반도체소자 제조 재료)는 6인치가 표준이었지만 이 회장은 생산량 확대가 용이한 8인치 웨이퍼 개발을 지시했다. 그 결과 삼성은 생산력에서 일본 기업을 월등하게 앞서며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까지 끌어올렸다.

또 이 회장의 특명 하에 완성된 갤럭시S(2010년 6월 출시)는 출시 이후 1년만에 1000만대를 돌파했다. 2012년 삼성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로 끌어올렸고 애플을 추월하기도 했다. '창조 경영'을 강조하며 이 회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창조적 경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화학·방산 등 계열사 매각 추진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기업 간 거래, 사물인터넷, 핀테크(금융+IT) 등 신수종사업의 영역 확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갤럭시S6 출시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페이는 국내외 금융사 시스템 연동 지연으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당초 7월 예정이었지만 9월로 서비스 시점을 미뤘다.

또한 타이젠 OS를 활용해 스마트카와 스마트 홈 구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때문일까. 이 회장의 1993년 신경영 선언을 촉발시켰던 이른바 '후쿠다 보고서'를 쓴 주인공인 후쿠다 다미오(67) 전 삼성전자 정보통신 부문 디자인 고문은 "삼성은 지금까지 성공한 기억을 모두 잊어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리셋(Reset)"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후쿠다 전 고문은 미래의 삼성과 관련해 "신경영 선언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톱이 됐기 때문에 목표로 삼을 기업이 없다"면서 "지금의 삼성은 선구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삼성 전체가 고민해야하는 시기"라며 "지금 준비하면 5년 후에 답이 나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삼성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대구 창조경제센터, 전국 첫 보육기업 성과 발표

삼성전자와 스타트업 교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삼성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선일)가 함께 지원한 C-랩 1기 졸업예정 16개 스타트업들의 6개월간 성과를 최종 발표하는 쇼케이스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최초로 보육기업의 성과를 선보였다.

C-랩은 대구센터 주관으로 삼성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창업·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기술의 1:1 멘토링과 삼성전자 상주 멘토 2명의 상시 멘토링, 삼성의 사내 임직원 대상 창의·혁신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맞게 재구성한 창의캠프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특허·계약·세무·회계 등 기업운영 실무 교육 등을 지원했다.

또한 삼성과 대구시가 조성하는 C-펀드(향후 5년간 총 200억원 조성)를 통한 초기자금 투자와 피칭 데이, 데모데이 등을 통한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C-랩 1기 운영을 통해 쇼케이스에 참여한 16개 기업 모두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며 총 10억 6000억원의 투자가 진행됐다.

C-랩 1기에는 월넛, 람다, 이대공, 에그핀 등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양일 간 C-랩 1기 16개 기업의 성과 전시, 특별강연, 피칭, 토크콘서트 등이 열렸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 권은희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이선종 삼성벤처투자 사장, 지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등 주요 인사가 12일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C-랩 1기 중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쇼케이스 이후 C-펀드를 통해 추가 2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지원하고, 5개 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경북대 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i71@

LG전자가 지난 4월 말 출시한 '이지 TV'가 50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대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이지 TV가 인기를 끈 비결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사용성으로 편리한 리모컨, 더 커진 글자, 또렷한 사운드 등을 지원한다.

/LG전자 제공

LG '이지 TV' 5000대 팔았다

하루 100대 인기몰이

LG전자는 지난 4월 말 출시된 '이지 TV'가 50일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100대씩 팔려나간 셈이다.

LG전자는 "이지 TV가 인기를 끈 비결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사용성"이라며 "이지 TV는 편리한 리모컨, 더 커진 글자, 또렷한 사운드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지 TV 리모컨 버튼의 크기는 커지고 개수도 절반 가량 줄었다. 이지 TV로 셋톱박스까지 조정할 수 있어 리모컨을 두 개 사용하던 불편함도 없앴다. 또한 가정주파수 대역 중 고음역을 강화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잡음 없는 또렷한 음질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지 TV의 스탠드와 리모컨에 동일하게 로즈골드 색상을 적용해 조화로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허재철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FD담당 상무는 "이지 TV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남녀노소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TV"라며 "다양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여 국내 TV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기자

삼성 갤럭시S6, 카드사와 마케팅 맞손

제휴카드 구매시 무선 충전기 증정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판매 확대를 위해 국내 카드사와 손잡고 이벤트를 연다.

삼섬전자는 15일부터 갤럭시 S6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카드 3사와 함께 무선 충전기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삼성, 신한, KB 카드사의 이동사 제휴카드로 구매하거나 구매 후 이동통신비 신규 자동 이체를 신청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전원에게 4만 9000원 상당의 무선 충전기를 무료 증정한다.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는 무선 충전기에 제품을 올려놓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중 전화를 걸고 받을 때에도 선 없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S6 무선 충전기 증정 행사.

행사 참여와 자세한 내용은 삼성, 신한, KB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삼성 vs LG, IoT시대 OLED 기술 경쟁 불꽃

투명·반사·플렉시블 등 차세대 전략품 속속 공개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디스플레이 주도권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급성장하는 Iot 시장에 정성을 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잇달아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IoT 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하고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BI 인텔리전스는 오는 2019년 하드웨어·소프트웨어·매니지먼트 서비스 등 Iot 관련 분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조7000억달러(약 1900조원)로 전망했다. 또 관련 디바이스 출하량도 2019년까지 61%의 성장을 예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55인치 미러OLED.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LG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제공

IoT 시장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가 디스플레이다. 가상·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비스·판매 분야에도 디스플레이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리테일 아시아 엑스포에서 업계 최초로 55인치 대화면 투명·미러 OLED를 공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는 세계 최고 수준인 45%의 투과율·풀HD 해상도·100% 색재현력(NTSC 기준)을 갖춰 일반 유리에 가까운 선명한 화면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러 OLED는 기존 거울과 유사한 75%의 반사율을 구현해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미러 제품에서 느껴졌던 흐릿한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투명·미러 OLED를 다양한 기기와 결합해 IoT 분야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이달초 미국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SID(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 2015'에서 1.3인치 원형 및 5.5인치 커브드 OLED, 양면 엣지와 12.3인치의 차량용 플라스틱 OLED등을 공개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곡률반경 30R을 구현한 롤러블 18인치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주목받았다. 이 제품은 반지름 3㎝의 원으로 말아도 화면 구동에 이상이 없다. 향후 웨러러블 기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LG디스플레이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한화, 테크윈 성장전략 수립 TF 발족

김상기 MS사업부장 등 32명

한화와 삼성테크윈은 성남 판교 삼성테크윈연구개발(R&D)지원센터에서 '테크윈 신비전·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지난 12일 발족했다.

14일 한화에 따르면 이날 발족식에는 신현우 방산부문 부사장, 실사팀 임직원, 김철교 삼성테크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는 지난해 11월말 삼성테크윈 인수 결정 후 실사팀을 구성해 약 6개월 동안 실사를 진행하고 임직원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에 내달 초까지 실사 결과와 자체 중장기 전략을 접목해 통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TF는 김상기 삼성테크윈 MS사업부장(전무)를 중심으로 사업부별 사업운영팀장 등 핵심 인력 20명과 김장선 실사팀 기획모듈 사업담당부장(상무) 등 12명이 참여한다.

김 대표는 TF팀원들에게 "한화에서 다시 시작하는 테크윈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로 5500백여 명의 임직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일인 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부사장은 테크윈의 CCTV사업이 향후 한화의 전자, 정보기술(IT) 분야의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테크윈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업력 증대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칩마운터 사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SMT(자동으로 전자기기 조립을 실행하는 장치)역량에 집중해 산업용 정밀 제조설비 기술 역량 확대와 함께 한화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논했다.

에너지장비사업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큐베이팅해 온 사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흑자 전환을 단기 목표로 수주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해 주기를 당부했다.

엔진부품 사업도 테크윈의 단순 부품생산을 넘어 모듈생산 단계로 진출해 항공시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로 도약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민수 사업의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실 강화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발전시켜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기엔진 사업은 현재까지 구축한 국내 엔진분야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며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주를 요청했다.

방산장비사업 역시 기존 K9 자주포의 수출 확대 등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다져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지난 12일 광주 오선동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스마트 에어컨 Q9000의 판넬을 조립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LG, 폭염에 에어컨 라인 풀 가동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일 이어지는 불볕 더위에 에어컨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국내 에어컨 판매량은 2011년 180만대, 2012년 150만대에 이어 2013년 200만대로 최대 호황을 맞았지만 지난해 130만대로 감소했다.

반면 올해는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예보와 함께 전세 재계약 주기가 맞물려 에어컨 판매량이 200만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에어컨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는 에어컨 판매·생산관련 비상대책 회의를 매일 열고 있다.

에어컨 판매량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때문에 수시로 기상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나리오를 준비해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스마트에어컨 Q9000은 에너지 프론티어 등급을 달성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3개의 바람문은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2013년 첫선을 보인 이 제품은 2년만에 누적 판매 50만대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올해 초 두 개의 냉기 토출구를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냉방할 수 있는 휘센 듀얼 에어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초미세먼지, 스모그 원인물질 및 냄새까지 제거하는 공기 청정기능을 갖췄다. /임은정기자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 형님상

▲이규용(전 MBC 프로덕션 이사)씨 별세, 이경준(전 한국전력기술)·선우(성남서중 교사)씨 부친상, 정헌재(신한은행 차장)씨 빙부상, 이인용(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씨 형님상 = 13일 오후 11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원주시 문막읍 충효공원. ☎ 02-2258-5940

대한항공, 美 여행객에 아이패드 미니 쏜다

내달 17일까지 경품 이벤트

대한항공은 미국 서부지역과 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권을 자사 홈페이지(https://kr.koreanair.com)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샘소나이트 캐리어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괌 노선에 대한 이벤트도 있다. 7월 7일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괌 행 항공권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PIC 4박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7월 12일까지 한국을 출발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행 항공권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항공권 구매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소니 핸디캠, 소니 액션캠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코노미석 구매 고객 역시 추첨을 통해 소니 액션캠과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양소리기자 10sound@

www.ilovenature.co.kr

뿌리면 끝!

천연 대나무 숯으로 풍성하게!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

왜 천연 대나무 숯인가?
일반 숯에 비해 10배 이상 고운
대나무 숯 미립자의 원적외선과 우수한
통기성이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왜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인가?

- 자연스러운 뿌리는 가발로 탈모고민 해결!
- 방수코팅되어 물이나 땀에도 안심!
-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대나무 숯 함유!
  (천연 숯 증모제 조성물 특허 제10-1183526호)
- 5~10초면 원하는 헤어스타일 완성!
- 약 200회 분사가 가능한 용량!
- 4가지 컬러로 다양한 헤어 컬러 연출!

남성용

자연스러운 흑색 진한 갈색

여성용

갈색 밝은 갈색

*소비자가격 : 2만원

제품 구성 세븐에이트 흑채 60g 3개(동일 컬러) + 자연체감 멘솔 헤어클리닉 샴푸(300ml) **45,000원** | **제품 구입 및 상담 080-661-4949**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4-00565
상호명 : 동성제약(주) | 대표자 : 이양구

시트로엥 'DS 고급화 전략' 지지부진

DS3 동급 차량 제원 비교	쌍용차 티볼리 디젤	르노삼성 QM3	DS3 뉴 라이트 시그니처
엔진	1600cc	1500cc	1600cc
최고출력	113마력	110마력	92마력
최대토크	34.7kg/m	26.5kg/m	23.5kg/m
연비	17.3㎞/ℓ	18.5㎞/ℓ	19.0㎞/ℓ
가격	2000만원 초반	2000만원 중후반	3000만원 초반

DS, 연비·가격 경쟁력 낮아 전략보다 성능에 신경써야

프랑스 자동차 기업 PSA 푸조시트로엥의 'DS 고급화'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시트로엥의 국내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산하 브랜드인 DS를 분리하기에 이르다는 업계의 평도 나온다.

14일 미국 자동차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PSA 푸조시트로엥 최고경영자 카를로스 타바레스(Carlos Tavares)는 지난해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세부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DS 분리다. 시트로엥의 고급차 라인으로 생산되던 DS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 실제로 PSA 푸조시트로엥은 2014년 파리모터쇼에서 DS 전시관을 시트로엥과 분리해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는 국내에서 DS 브랜드를 분리해 운영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DS는 해치백 제품인 소형 DS3과 준중형 DS4, 플래그십 DS5를 판매하고 있다. 작년 DS 제품의 판매량은 매달 30대 안팎이었다. 올해는 그보다 판매량이 줄었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무리하게 본사의 전략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DS의 인지도와 점유율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쟁사 동급 모델에 비해 DS는 차량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11일 국내 출시된 'DS3 뉴 라이트 시그니처'의 경우 출시 예정인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디젤, 르노삼성 QM3에 비해 최고출력, 최대토크가 현저히 떨어진다. 티볼리 디젤의 최고 출력은 113마력, QM3는 110마력이다. DS3 뉴 라이트 시그니처보다 20마력 가량 높다. 최대토크 역시 DS3 뉴 라이트 시그니처가 23.5kg/m인데 비해 티볼리 디젤은 34.7kg/m, QM3는 26.5kg/m다.

가격경쟁력에서도 DS3 뉴 라이트 시그니처가 뒤처진다. 티볼리 디젤의 가격은 2000만원 초반으로 책정됐다. QM3 역시 2000만원 중후반대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DS3 뉴 라이트 시그니처의 출고가는 3290만원으로 책정돼 티볼리보다 약 1000만원이 비싸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본은 경쟁력있는 차량"이라며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KT, 유클라우드 비즈 파트너 포털 출시

중개 사업자 대상 효율적 영업·고객관리 지원

KT(회장 황창규)는 '유클라우드 비즈(ucloud biz)' 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영업과 고객관리를 지원하는 '유클라우드 비즈 파트너 포털'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클라우드 비즈 파트너 포털'은 중개 사업자들이 KT가 운영하는 '유클라우드 비즈(https://ucloudbiz.olleh.com/)' 사이트의 ▲회원 가입 ▲세부 서비스 이용 및 제어 ▲요금 산정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포털 사이트다.

사측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개사업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유클라우드 비즈'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고객 관리와 서비스 이용, 요금 산정 등의 기능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해야 했다. 이에 중개사업을 하고 싶어도 포털 운영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바로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KT는 "기존 중개 사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클라우드 비즈 파트너 포털'을 제작, 상품 세부 안내부터 플랫폼 사용 매뉴얼을 제공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들이 손쉽게 유클라우드 비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객관리, 요금 청구·정산을 위한 편의 기능, 서비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능 등이 탑재된 '관리자용 운영 포털'도 함께 제공하며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중개 사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품과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개 사업자들에게 '유클라우드 비즈 파트너 포털'을 가상서버 이용 요금만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유클라우드 비즈 판매 경쟁력을 높였다.

/임은정기자 eunj71@

KT 모델들이 '유클라우드 비즈 파트너 포털'을 활용해 효율적인 영업과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KT 제공

佛 환경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친환경車' 선정

기아차 '쏘울 EV'

'도시형 대체에너지 차량'

기아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 '쏘울 EV(사진)'가 프랑스 기자들이 뽑은 '도시형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선정됐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 EV는 '2015 MAAF 환경 자동차 어워드'의 도시형 대체에너지 차량 부문에서 수상했다.

2005년 제정된 이 상은 자동차와 환경 부문 기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다.

기아차는 쏘울 EV가 유럽기준으로 212km의 주행거리와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공간 활용성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아차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친환경차 이미지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쏘울 EV는 전기차 선도국인 노르웨이에서 소비자 정보 제공 단체 딘사이드로부터 '2015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가 뽑은 '2015 올해의 차' 시티카(City Car)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한편 쏘울 EV는 올해 제주 등 9개 지역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서 신청을 거쳐 배정된 1801대중 가장 많은 41%를 차지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LGU+, KAI에 기업용 유무선전화 통합시스템 제공

'U+Biz 모바일 IPT' 구축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특화된 기업용 유무선전화 통합시스템(FMC) 'U+Biz 모바일 IPT' 솔루션을 구축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U+Biz 모바일 IPT 솔루션은 기업의 직원 스마트폰에 내선번호를 부여해 임직원간 유무선 내선 무료 통화를 제공하고, 공지사항이나 채팅 등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최적화된 모바일 사무환경을 만드는 유무선 결합 서비스다.

이 솔루션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기업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구축한 유무선전화 통합 시스템이다. 유선전화와 모바일을 융합하는 것으로 기존에 보유한 유선교환기와 모바일 IPT 시스템을 연결해 직원들이 모바일 통화뿐 아니라 시내전화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초고속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별·그룹채팅 기능과 공지사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간 소통이 가능한 전용 맞춤형 앱을 제공한다. 이에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나 업무 관련 공유가 가능해져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LG유플러스의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반전화망과 물리적 분리, 암호화, 앱 활용 시 스크린 캡쳐 금지, 단말 분실 시 원격 앱 삭제 기능 등 강력한 보안 정책을 적용해 국내·국제 보안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문경기자 hm0108@

마스크·손세정제 관련주, 대주주 배만 불렸다

메르스 사태로 매출 급증 관련업종 주식 연일 상한
대주주들 차익실현 위해 주식 매도 후 거액 챙겨

급격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요 증가로 관련 업체의 주가는 폭등했다. 하지만 현재 대주주들의 차익실현을 위한 대량 매도로 연일 하한가를 찍으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로 마스크·손세정제 매출이 급증하자 관련 테마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마스크·손세정제 관련 업체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 '케이엠'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매출이 늘며 5월29일부터 6월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종가 5080원에서 3일 42.66% 상승한 8860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케이엠의 등기이사인 김 모씨와 이 모씨가 총 14만8380주를 매도하며 주가는 급락했다.

4일 9.93% 하락에 이어 8일 -14.94%, 9일 -11.79%, 10일 -7.12%, 12일 -11.18%를 기록했다. 12일 종가 5640원까지 내려갔다. 늘어난 매출에도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주식을 매도한 김 이사와 이 이사는 4일 만에 각각 11억9610만원과 2억1640만원을 챙겼다.

같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는 5월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6월2일 종가는 33.42% 증가한 703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최대주주인 등기이사 최 모씨가 8일 100만주를 매도하며 주가가 급락, 하한가까지 갔다. 5거래일 동안 38.20%가 줄었다. 12일 종가는 4140원이다. 최 이사가 챙긴 돈은 약 76억4000만원이다.

다른 마스크제조 업체도 상황이 같다. '웰크론'의 주가는 5월29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6월2일까지 5월28일 대비 27.46%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6월 3일부터 8거래일 동안 43.54% 하락하며 반토막났다. 2일 종가 9140원이었던 웰크론은 12일 5160원에 장을 마쳤다.

'오공'도 5월 2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이며 6월3일까지 42.59% 급등했다. 하지만 4일 하한가를 시작으로 7거래일 동안 36.48%하락, 12일 종가 4935원을 기록했다.

손세정제 제조업체 '파루'는 5월 29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4거래일 동안 42.66%상승했다.그러나 6월 4일 하한가를 시작으로 7거래일 동안 38.96% 하락했다. 12일 종가 4120원을 기록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우리가족 건강챙기기' 행사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우리가족 건강 챙기기'라는 주제로 17일까지 건강 관련 상품 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우리가족 건강 챙기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제시 시 홈플러스와 한독약품이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 식품 '백일의 약속' 상품을 할인해 주는 행사다. /홈플러스제공

백수오 파동 후… 中企, 홈쇼핑 입점 58%⬇

건강기능식품 방송편성 축소 신규입점 중소기업 심사 강화

'가짜 백수오' 논란 40일 만에 홈쇼핑 입점 중소기업이 5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백수오 사태가 터진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0일간 A홈쇼핑에 새로 입점(인터넷몰+방송)한 중소·중견 협력사는 97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3곳에 비해 58.4%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백수오 사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홈쇼핑의 경우 방송을 편성할 때 업체별로 53~8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백수오 사태로 원료 생산·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뿐 아니라 홈쇼핑에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홈쇼핑 담당자들이 중소업체 입점 선정 기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방송 편성을 줄이고, 신규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좋은 제품을 찾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입점시켜야 탈이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담당자들이 패닉(공황상태)"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상담 건수는 모두 1만2234건으로 4월보다 269.3% 급증했다.

이미 복용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법무법인 등과 지속적으로 관련 절차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현재 백수오에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결과를 확인한 뒤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

공정위, 도미노 이어 피자헛 직권조사

피자 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직권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피자헛의 불공정 가맹사업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정위가 MPK와 도미노피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착수한 뒤 약 두달만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는 가맹본부에 대해 서면으로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예고없이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불공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재찬 위원장의 엄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연초 취임 이후 가맹거래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피자헛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납품업체 직원 불법 파견' 홈플러스, 과징금 3억5700만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해당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납품업체에서 전액 부담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위법 시 5억원 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서면약정에 따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한 경우▲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용하다고 공정위가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홈플러스에 불법으로 파견된 종업원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에도 경품행사 광고를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성현기자 minus@

"갓 잡은 동해안 오징어가 1500원" 14일 서울 행당2동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주부 모델들이 금어기 이후 첫 어획한 동해안 생물 오징어와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17일까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한 마리당 1500원에 동해안 생물 오징어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위스키 가격 5% 오른다

디아지오, 내달부터 인상
조니워커·싱글톤·J&B 등
인건비·생산자물가 반영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가 7월 1일부터 조니워커, 싱글톤, J&B Jet 등의 위스키와 보드카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14일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조니워커 레드 375㎖는 기존 1만2452원에서 1만3079원(5.03%), 700㎖는 2만3430원에서 2만4607원(5.02%)으로 인상한다.

조니워커 블랙 375㎖는 2만1230원에서 2만2297원(5.02%), 500㎖는 2만6378원에서 2만7608원(4.66%), 700㎖는 3만8500원에서 4만0425원(5%)까지 오른다.

조니워커 블루 500㎖는 14만5013원에서 15만2262원(4.99%), 750㎖는 21만7514원에서 22만8393원(5%)으로 인상된다.

또 싱글톤 12년 500㎖는 4만5100원에서 4만7355원(5%), 700㎖는 5만5273원에서 6만1193원(10.17%), 15년 700㎖는 7만9200원에서 8만3160원(5%)으로 오른다.

J&B Jet 375㎖는 2만2423원에서 2만3595원(5.22%), 500㎖는 2만6400원에서 2만7720원(5%), 700㎖는 3만8830원에서 4만772원(5%)이 된다.

J&B Rare도 375㎖가 1만3211원에서 1만3871원(4.99%), 700㎖가 2만4860원에서 2만6103원(5%)까지 오른다.

디아지오 관계자는 "원액 수급의 어려움과 인건비·생산자물가 상승 등 인상분에 대한 압박이 있어 이번에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가 위스키 1위 시장 이긴 하지만 인상한 제품이 전체 위스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여타 주류업계가 자사를 따라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금강제화, 아름다운 가게에 신발 기부

'클락스 브링미 백' 캠페인
회수된 600켤레 세탁·수선

금강제화(대표 김경덕)는 지난 12일 '클락스, 브링미 백(Clarks, Bring me back)' 캠페인으로 회수한 신발 600켤레를 수선해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강제화는 클락스 종로점·금강제화 강남점·랜드로바 명동점 등 전국 12개 매장에서 신던 신발을 가져온 고객에게 클락스 신발을 50% 할인하고 회수된 신발을 세탁하고 수선한 뒤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신발 판매 수익금은 국내 소외계층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버려지는 신발을 의미있게 쓰자는 뜻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고객들도 호평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제화는 2013년부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클락스, 브링미 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 신발 물량은 2000켤레에 달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패션·도자기 업체, 화장품 사업 뛰어든다

중국 등 해외 진출도 타진
"품질관리 등 뒷받침돼야"

문턱이 낮고 중국인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 시장에 패션·주얼리 업체는 물론 도자기 업체, 연예기획사까지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로만손(대표 김기문)은 자사 주얼리 브랜드인 '제이에스티나 레드'를 통해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이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1층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립스틱·아이섀도 등 화장품과 잡화 등을 함께 선보이며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반기부터는 단독 매장을 열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할 계획이다.

70여 년간 도자기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왔던 행남자기(대표 김유석)는 지난해부터 의료기 전문 제조업체 진성메디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에 치여 주춤했던 생활자기 사업 대신 화장품 등 신사업을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다.

패션브랜드 지프·시에로 등을 전개하고 있는 제이엔지코리아(대표 김성민)는 지난달 색조 브랜드 '시에로 코스메틱을 론칭'했다. 20~30대를 타깃으로 한 립·네일 등이 주력 제품이다.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대표 양현석)가 론칭한 색조 브랜드 '문샷'은 올 하반기부터 싱가포르·말레이시아·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진출한다. 싱가포르 세포라 11곳과 말레이시아 세포라 13곳에 입점하며 중국 진출을 앞두고 배우 이성경 외에 추가로 한류 모델을 기용할 계획이다.

패션 브랜드 스타일난다(대표 김소희)가 2009년 론칭한 쓰리컨셉아이즈 역시 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숍인숍 포함 총 21개 매장에서 전개 중이다. 연내 홍콩에 매장 1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8조 9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수출은 18억7만 달러로 국내 생산실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성장률은 40.3%로 약 3배 앞섰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같은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에 위탁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며 "브랜드가 많아지면 경쟁도 치열해질텐데 기술력과 품질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회사들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아모레퍼시픽 "포인트로 우산 받아가세요"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은 15일부터 8월 말까지 '쉐어 유어 엄브렐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쉐어 유어 엄브렐러는 뷰티포인트 일정액으로 우산을 교환받으면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이다.

우산은 미국의 천재화가인 장 미쉘 바스키아의 아트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 1983년 작 '배트맨'을 모티브로 바스키아 특유의 거침없는 선과 색감으로 자유분방한 감성을 담아 소장 가치를 더했다.

1만2000 뷰티포인트로 우산 1개를 교환할 수 있다.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아리따움·이니스프리·에뛰드·오설록·아모레퍼시픽쇼핑몰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15일부터 약 한 달 간 뷰티포인트 공식 사이트를 통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OX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세 가지 퀴즈 정답을 맞춘 모든 참가자에게 1500 뷰티포인트 적립해준다.

/김수정기자 ksj0215@

롯데百, 바캉스 의류 최저가 할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며 고객들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가 의류·바캉스 의상 등 계절 상품과 인기 식품 파격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2~18일 3층 행사장에서 '러블리 원피스 페스티벌'을 열고 봄·여름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라인·케네스레이디 원피스는 3만원, 잇미샤 원피스는 6만9000원이다.

잠실점은 12~17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 '유니섹스&스포츠 바캉스웨어 초특가전'을 한다. 버커루 반바지 3만9000원, 나이키 슬리퍼 2만3000원, NBA 티셔츠는 1만원에 선보인다.

/박상길기자 sweatsk@

광동제약, 한국 약학사 집대성

가산약학역사관 개관

'조선약물학' 초판본 등 전시 근현대 약학교육史 재조명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가산약학역사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조선 말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 약학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가산약학역사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산약학역사관은 광동제약이 건립기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약대 교수들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왔다. 광동제약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의 아호인 '가산'을 따 이름 붙인 이곳은 서울대 약대 21동 1층에 177.17㎡ 규모로 조성되었다. 약학계 원로 57명이 기증한 유물 수백여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약학교육의 역사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겸한 가산약학역사관 개관식은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약학대 이봉진 학장을 비롯해 학내외 주요인사와 광동제약 최성원 부회장, 김현식 사장, 모과균 사장 등 관계자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낙인 총장은 "역사의 뿌리찾기는 학문영역에서 실로 중요한데 약대 선배님들과 많은 분들의 정성이 결실을 맺었다"며,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업적을 후세까지 이어감으로써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동제약 최성원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가산약학역사관이 인재의 교육육성과 독창적인 의약품 개발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열린 공간이자, 서울대 약대의 '약을 통한 인류의 건강증진' 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장소로 자리 잡아 보건의약 발전의 비옥한 토양이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약학사를 집대성한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산약학역사관은 개관 후에도 약학 관련 유물을 지속적으로 기증받는 한편 다양한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이곳에는 국내 최초의 약학교육기관이자 서울대 약대의 전신인 조선약학교에서 사용한 연고판(연고제조기구), 1930년대 경성약학전문학교(서울대 약대 전신)의 교재 '조선약물학(朝鮮藥物學)' 초판본, 해방 직후 약제사 면허증 등 한국 약학사 100년을 망라하는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한림대, 한국사회 세대갈등 심층 분석

한림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는 서울 안국동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인구 고령화, 저성장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세대갈등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제1부에서는 한국 정치경제 지형과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로 한림대 사학과 성경륭 교수가 '한국 정치의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KBS 박종훈 기자가 '한국 경제와 세대갈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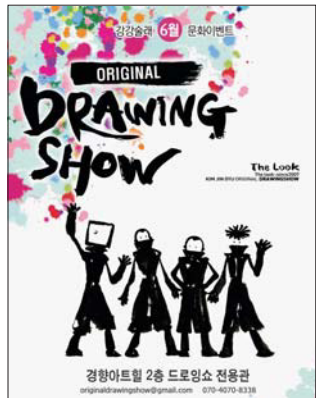
제2부 한국 복지와 세대공생이라는 주제에서는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한국 연금과 세대공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최유석 교수가 '세대간 갈등과 연대의 국제비교'란 주제로 설명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이번 세미나와 발표된 연구가 세대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세대통합·공전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새 대공생 사회로 전환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

"드로잉쇼 보고 메르스 스트레스 날리세요"

강강술래 힐링 이벤트 이달말까지 티켓 선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공포와 스트레스에 지친 고객들을 위로하는 다채로운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드로잉쇼' 공연티켓(1인2매)을 선물한다.

미술과 무대의 환상적인 만남 '오리지널 드로잉쇼'는 세계 최초의 미술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이 관객 앞에서 순식간에 이뤄지며 상상 못할 미술의 특수효과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또 30일까지 전 매장에서는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우사골곰탕(500㎖·2팩)은 5000원, 건강에 좋은 인삼과 홍삼을 넣은 늘봄갈비탕(500㎖·2팩)은 5500원에 판매하는 1+1 덤 증정 행사도 벌인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스탠포드 호텔, 돌잔치 실속 패키지

성장동영상 무료 제작

상암동 DMC 스탠포드호텔이 합리적인 구성으로 가격 거품을 뺀 실속형 돌잔치 패키지를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돌잔치 패키지에는 샴페인과 케이크, 돌상, 포토테이블, 돌잡이 용품 등이 세심하게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감동을 선사하는 성장 동영상을 무료로 제작해주며 빔프로젝트와 음향시설이 완비돼 있어 보다 실속 있는 돌잔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패키지는 러블리 데이(Lovely day), 스위트 드림즈(Sweet Dreams),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 패키지로 총 3가지로 선보인다. 가격은 50인기준 275만원부터 100인기준 495만 원대까지 선택 가능하다.

호텔 관계자는 "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호텔 내에 특별한 혜택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과 평생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예약 (02) 6016-0021.

/정은미기자 21cindiun@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에이드 4종' 출시

새콤달콤 과일에 얼음 올려

세계적인 도넛 브랜드 크리스피 크림 도넛(대표 노일식)이 뜨거운 여름을 맞아 청량감 돋보이는 '리프레쉬 에이드 4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프레쉬 에이드 4종'은 새콤달콤한 과일에 잘게 부순 얼음을 빙하처럼 쌓아 올려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제품으로 '스트로베리', '라임그레이프', '오렌지 망고', '레드 자몽'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품은 무더운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사이즈인 대용량(24온스)컵에 담아 제공한다. 가격은 6500원.

크리스피 크림 도넛 관계자는 "뜨거운 여름을 맞아 수분이많고 비타민이풍부한 과일과 탄산수를활용한 에이드를 준비했다"며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청량한 신제품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JAL, 내달 7일까지 항공권 특가 판매

日 38개 노선 대상

일본항공 한국지점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얼리버드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가 판매는 서울(김포, 인천)에서 출발해 도쿄와 도쿄를 경유한 일본 내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항공권 가격은 JAL 공시운임에서 5% 할인된 운임이 적용된다.

이 기간 중 김포~하네다 노선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은 36만7300원으로 구입 가능하다. 도쿄를 경유해 삿포로를 왕복하는 노선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기준으로 44만5700원부터다.

일본항공은 특가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매주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kr.jal.com/krl/ko/earlybird.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star bag

결혼 2년 만에 득녀

배우 **지성-이보영**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부모가 됐다고 두 사람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윌엔터테인먼트가 13일 전했다.

지성과 이보영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다.

품절녀 대열 합류

배우 **이소연**이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다.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14일 "배우 이소연이 2세 연하의 벤처사업가와 올 가을 결혼식을 올린다.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라고 전했다.

예비 신랑은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IT 업계 사업을 경영하면서 K대 MBA 과정을 밟고 있는 엘리트로 알려졌다.

日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그룹 **빅뱅**이 오는 8월 22일 오사카 얀마스타디움 나가이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뮤직 페스티벌인에이네이션(a-nation)에 2년 연속 헤드라이너로 출연한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2일 전했다.

2012년, 2014년 도쿄 공연을 포함해 세 번째 헤드라이너 출연이다.

수지·민효린과 한솥밥

배우 **김예원**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예원은 "JYP는 연기는 물론 음악까지 다방면으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이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신 있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돌아가죠

영화 '극비수사' 유해진

> 사주로 유괴된 아이 찾는 도사役 맡아
> 웃음 배제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연기
> 예능으로 뜻밖의 사랑 감사하고 행복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 배우들이 있다. 유해진(45)이 바로 그런 배우다. 지난해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 그가 보여준 존재감이 이를 증명한다. 대종상영화제와 백상예술대상이 그에게 남우조연상을 선사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올해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뜻밖의 사랑도 받고 있다. tvN '삼시세끼 어촌편'에 절친한 차승원과 함께 출연한 유해진은 '참바다씨'라는 별명과 함께 대중적인 관심을 얻었다. 인기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광고 출연만 놓고 봐도 그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유해진의 활약은 오는 18일 개봉하는 영화 '극비수사'(감독 곽경택)로 이어진다.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 유해진은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되는 도사 김중산 역을 맡아 형사 공길용 역의 김윤석과 호흡을 맞췄다. 사주를 통해 아이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이번 영화에서 유해진은 웃음을 최대한 배제했다.

"사주나 신 내림 같은 미신적인 요소보다 아이를 구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이 인물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공길용 형사가 동적인 만큼 김중산 도사는 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았죠. 무엇보다 공길용 형사나 김중산 도사나 다 아이를 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길용 형사, 그리고 김중산 도사의 공통점은 유괴된 아이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사건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영화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소신 있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유해진은 "어렸을 때는 소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집을 지켜온 대쪽 같은 분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이렇게 삐걱거리면서도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영화가 그리고 있는 소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향한 응원이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받고 있는 많은 사랑에 대해 유해진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어릴 때 이런 인기를 얻었다면 삶이 확 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털어놨다. 단역과 조연을 거쳐 주연까지 맡을 수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도 분명 힘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남들도 겪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견뎌낸 그는 지금 흐트러지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있다.

유해진은 '극비수사'를 시작으로 '소수의견'과 '베테랑'으로 연이어 극장가를 찾는다. 최근 촬영을 마친 '그놈이다'도 올해 중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작품 모두 코믹한 면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를 연기했다. 유해진의 다양한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에게 배우로서의 소신을 물었다. 그는 "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좋아하는 연기를 '배운 것이 도둑질 뿐'이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배우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태해지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죠. 아직 연기에 대해 제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마지못해 연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렵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한제훈)

메르스도 못 꺾은 '쥬라기 월드'

개봉 3일 만에 120만 돌파

중동기호흡증후군(메르스) 여파도 '쥬라기 월드'의 인기를 꺾지는 못했다. 지난 11일 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가 개봉 3일 만에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쥬라기 월드'는 개봉 3일째인 13일까지 누적 관객수 123만2794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개봉 첫 날인 11일 27만4726명의 관객을 모으는 기염을 토하며 메르스 여파에 아랑곳하지 않는 흥행세를 보였다. 이어 12일에는 31만123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13일 토요일에는 64만5184명을 모아 선전을 이어갔다.

잠시 주춤했던 '샌 안드레아스'도 주말을 맞이해 다시 관객 동원을 이어갔다. 13일 하루 동안 12만1244명의 관객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135만6905명을 기록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누적 관객수 363만98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켰다. 4위는 '스파이'로 누적 관객수 216만7659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영화 '간신'과 '악의 연대기'는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공포·스릴러 혼재한 매혹적인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역사적 아픔, 독특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
의외의 전개… 낯선 장르 변화 호불호 갈릴 수도

장르는 영화를 고르는 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된다. 어떤 장르인지를 통해 영화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영화는 한 가지 장르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하 '경성학교', 감독 이해영)이 그렇다.

영화는 1938년 경성의 한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한다. 숲속 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기숙학교는 병든 소녀들이 모인 요양원이기도 하다. 이곳에 한 소녀가 찾아오면서 영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폐병을 앓고 있는 소녀 주란(박보영)이 그 주인공이다.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 만큼 영화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가득 자아낸다. 주란과 함께 생활하게 된 소녀들은 주란의 일본어 이름이 시즈코라는 이유로 그녀를 경계한다. 주란이 이곳에 오기 전 똑같은 이름을 지닌 소녀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시즈코와 절친했던 연덕(박소담)이 유일하게 주란에게 손길을 내민다. 소녀들의 일상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태도를 보인다. 늘 기품 있는 미소로 소녀들을 대하는 원장(엄지원)이 그 중심에 있다.

영화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에서 관객은 공포와 스릴러라는 익숙한 장르적 전개를 예상하게 된다. 실제로 영화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의 전개를 이어간다. 공포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들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경성학교'는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예상과 전혀 다른 의외의 전개를 이어간다. 기대를 배반하는 장르적인 변화다.

이런 변화가 관객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영화가 그리는 장르의 변화가 마냥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경성학교'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아픔을 가장 기발한 장르적 상상력으로 구현해낸 작품일지 모른다.

호불호가 갈릴 영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10대 소녀들의 감성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연출이 눈에 띈다. 강렬한 비주얼로 담긴 미장센도 인상적이다. 엄지원, 박보영의 연기도 좋지만 이들 사이에서 강한 존재감을 남기는 신예 박소담의 매력이 빛난다. 이상하지만 매혹적인 영화다. 15세 이상 관람가. 6월 18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전국 고민자랑 새 왕좌 방어전

◆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솔직하고 쿨한 매력의 은지원, 서인영과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구하라가 전국고민자랑을 함께 한다. 지난주 1승을 차지한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주인공이 왕좌에 오른 가운데, 남편의 팬티가 사라진다는 주부와 살 빼는데 도움이 안되는 가족 때문에 고민인 여대생, 사주를 너무 믿는 엄마 때문에 속 터지는 고3 소녀가 도전장을 내민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오후 11시15분

'힐링대전'으로 '허셰프' 최현석과 '대가' 이연복이 자신들의 진가를 선보인다.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요리 실력과 실제 영업장에서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애주가 박현빈을 위한 '곤드레 만드레 샤방샤방 안주 대결'이 펼쳐진다. 아기자기한 음식 전문인 박준우와 플레이팅의 귀재 최현석은 기발하고 특별한 안주 레시피를 선보인다.

◆ tvN '촉촉한 오빠들' 오후 9시 40분

20여년 동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숨겨왔던 아버지. 어부가 된 거친 손에 한으로 남아있던 그의 꿈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선율로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1·2)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51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5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26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2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스타강사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후아유 – 학교 2015 (15회)	00 화정 (19회)	00 상류사회 (3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천일의 앤>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 시즌2 (10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05회) (재)		0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9회) 30 마트를 헤매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1회)			◆ 해외야구 02:35 필라델피아 vs 피츠버그 04:05 미네소타 vs 텍사스 05:10 LAD vs 샌디에이고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44회) (재)	00 두 남자의 캠핑쿡 (6·7회)	00 쇼킹 70억 (17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7회)	00 오늘 뭐 먹지? (71·70회)	00 아시아의 대평야 –1부 프롤로그 바람과 생명의 땅	00 그래버스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31회)	40 촉촉한 오빠들 (4회)	00 한식대첩 3 (4회)	00 <맨 헌트>카메룬 바카족의 사냥법		
22시			20 오늘 뭐 먹지? (71·8·25회)	00 라이프 해킹 (9·10회)	00 오만과 편견	
23시	00 비정상회담 (50회)	00 신분을 숨겨라 : 수사5과 잠입일지 50 삼시세끼 정선편 (5회) (재)		00 <사상 최악의 참사> 런던 열차 정면 충돌		
24시	30 화이트 스완 (3회)		00 샘킴의 함께쿠킹 (11·10회) 20 2015 테이스티로드 (21회)	00 <극한직업> 민어잡이	40 매드맥스 2	

14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나자 두 골의 주인공인 지소연과 전가을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잡은 고기, 마지막에 놓쳤다

코스타리카와 2-2 무승부… 스페인전 반드시 이겨야 16강 '실낱' 희망

FIFA 여자월드컵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마지막 1분을 막지 못해 12년 만의 월드컵 첫승을 놓쳤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최전방에 유영아가 나섰고 2선에 전가을, 지소연, 강유미가 공격 지원에 나섰다. 미드필더는 조소현과 권하늘이 지키고 수비는 이은민, 심서연, 황보람, 김혜리가 포백을 구성했다. 골문은 김정미가 지켰다.

한국은 전반 17분 코스타리카의 멜리사 에레라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5분 만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21분 유영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크리스틴 그라나도스를 제치는 과정에서 발이 걸려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를 지소연이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동점골을 만들었다.

여세를 몰아 4분 뒤인 전반 25분에 역전골을 기록했다. 강유미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전가을이 자로 잰듯한 헤딩슈팅으로 상대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사각 지대를 노려 골을 만들어냈다.

후반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한국은 후반 2분 유영아가 왼쪽 측면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전가을이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고 말았다. 이어 후반 7분에는 강유미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수에 가로막혔다.

수세에 몰린 코스타리카는 공격라인을 끌어올렸다. 윤덕여 감독은 이를 공략하기 위해 후반 18분 강유미 대신 정설빈을, 31분에는 유영아 대신 이금민을 투입시켜 공격에 변화를 줬다. 코스타리카는 후반 30분 바란테스를 대신해 카리아 비얄로보스를 투입해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 양 팀 감독의 전술 싸움에 공방전은 후반 막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열띤 공방전 끝에 수확을 거둔 것은 코스타리카였다. 후반 44분 교체투입된 비얄로보스가 집중력이 떨어진 수비라인을 뚫고 통한의 동점골을 넣었다. 마지막 1분을 막지 못해 한국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쳤다.

이로써 월드컵 첫승을 다음 상대인 스페인전으로 기약하게 됐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스페인은 브라질에 0-1로 패했다. 한국은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열린다. 3차전 스페인과의 경기는 18일 오전 8시 KBS에서 중계한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메시 1골·1AS 맹활약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 파라과이와 2-2
우루과이, 자메이카 제압

14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 에스타디오 라 포르타다에서 열린 2015 코파 아메리카 B조 1차전에서 파라과이에게 후반45분 동점골을 허용하자 망연자실하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AFP=연합뉴스

우승후보인아르헨티나가슈퍼스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는 14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 에스타디오 라 포르타다에서 열린 2015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파라과이와 2-2로 비겼다. 초반 주도권을 쥐며 예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듯 했으나 막판 집중력을 잃고 방심한 탓에 무너졌다.

첫 골은 메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세르히오 아궤로(맨체스터시티)의 합작품이었다. 아궤로는 전반 29분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 부근에서 메시의 패스를 받아 왼발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반 36분에는 앙헬 디마리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메시가 골로 연결해 2-0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일방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추가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린 파라과이의 역습에 당했다. 파라과이는 후반 15분 넬손 발데스(프랑크푸르트)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2-1 추격하더니 전광판 시계가 멈춘 후반 45분 프리킥 기회에서 루카스 바리오스(몽펠리에)가 왼발 슈팅으로 동점에 성공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조 2위에 머물렀다.

앞서 열린 경기에선 우루과이가 자메이카를 1-0으로 꺾고 첫승을 거뒀다. /하희철기자

추신수, 3안타 3타점 '맹타'

강정호, 1안타 1득점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이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3안타를 몰아치고 3타점을 기록하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추신수는14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알린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2번타자·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3안타 3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한 경기에 3안타를 친 건 올 시즌 5번째로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11일 만이다. 또 지난달 24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21일 만에 한 경기 3타점 이상을 올렸다.

첫 타석부터 안타가 터졌다.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미네소타 오른손 에이스 마이클 펠프리로부터 중전안타를 만들었다. 1-3으로 뒤진 3회말 1사 2루에서도 펠프리의 싱커를 공략해 우전 적시타를 쳤다. 9-3으로 앞선 5회말 2사 1, 2루에서는 미네소트 오른손 불펜 J. R. 그라함의 시속 153㎞ 직구를 공략해 우중간 펜스를 직접 때리는 2타점 2루타를 쳤다.

이날 3타점을 추가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499타점으로 500타점 달성에 1타점만 남겨뒀다. 시즌 타율도 0.238에서 0.248(218타수 54안타)로 올랐다. 텍사스는 선발 전원안타를 기록하며 미네소타에 11-7로 승리했다.

강정호(28)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7번타자·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팀 동료 스탈링 마르테의 2루수 앞 내야안타 때 홈을 밟아 시즌 13번째 득점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81(135타수 38안타)로 조금 올랐다. 피츠버그는 4-3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거뒀다. /하희철기자

28위 콜롬비아, 3위 프랑스 제압

잉글랜드, 멕시코에 2-1 勝

FIFA랭킹 28위 콜롬비아가 3위 프랑스를 꺾고 F조 선두에 올랐다. 이로써 F조는 혼전에 휩싸였다.

콜롬비아는 14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몬콘 뉴브런스윅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15 여자월드컵 F조 예선 2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FIFA랭킹 3위 프랑스로부터 승리를 거둔 28위 콜롬비아는 여자월드컵 역사에서 FIFA랭킹 10위권 안의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저순위 팀으로 기록됐다.

14일(한국시간) 캐나다 몬콘 뉴브런스윅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월드컵 F조 2차전 콜롬비아와 프랑스의 경기에서 프랑스의 로라 조르제가 콜롬비아의 카탈리나 우스메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콜롬비아는 전반 19분 레이디 안드레이드가 선제골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후 프랑스는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오히려 콜롬비아는 프랑스의 공세를 막고 후반 추가시간 카스탈리나 우스메가 쐐기골을 넣어 승리를 거뒀다.

잉글랜드도 멕시코에 승리를 거뒀다. 전반 25분 프란체스카 키르비가 골을 기록했고 이후 카렌 카르니가 추가골을 터트리며 2점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멕시코는 후반 추가 시간 파비올라 이바라가 만회골을 넣는데 그쳤다. 잉글랜드는 이날 승리로 2위로 올라섰고 멕시코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희철기자

◆ 14일 전적

▷ F조

콜롬비아(1승1무) 2(1-0 1-0)0 프랑스(1승1패)

잉글랜드(1승1패) 2(0-0 2-1)1 멕시코(1무1패)

Downfall of Elliot with Samsung

<엘리엇 '진흙탕 전략'에 말려든 삼성>

Elliot stated on the 11th that it is illegal to dispose their own treasury stock and therefore, Elliot is filing a juncture against the board members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KCC.

Samsung C&T Corp. has increased the amity share to 19.95% by selling their own treasury stock, but no one can assure victory at the general meeting.

The amity share is less than 30% even if they bring in the National Pension which is the second stock holder.

Assuming that all stock holders would participate in the general meeting, the condition of merger is far behind the required line.

If 70% of the stock holders were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meeting, Samsung C&T Corp. needs 17% more amity share.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9일 이번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엘리엇이 지난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불법이라며 삼성물산과 이사진, KC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우호지분을 19.95%로 늘렸지만 주총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9.98%)을 아군으로 끌어들여도 우호지분은 30%가 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합병 가결 요건인 3분의 2(66.6%)에 턱없이 모자른다.

70% 정도의 주주만 총회에 참석한다고 해도 삼성물산에겐 우호지분이 17% 가량 더 필요하다.

PAGODA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5		9		1		2	3
8			4		5			7
		8	2		7	9		
3		7		1		5		2
		1	6		4	3		
1			5		2			9
2	3		1		8		5	4

		6						
	3		2					
4		5		9			1	
	8		7			5	6	
		7			8	4	2	
				6	5		9	
			4	7				9
		4	6	2	1		8	
						6		

스도쿠 정답

6	1	2	7	8	3	4	9	5
7	5	4	9	6	1	8	2	3
8	9	3	4	2	5	1	6	7
5	4	8	2	3	7	9	1	6
3	6	7	8	1	9	5	4	2
9	2	1	6	5	4	3	7	8
1	8	6	5	4	2	7	3	9
2	3	9	1	7	8	6	5	4
4	7	5	3	9	6	2	8	1

9	7	6	8	1	4	2	3	5
8	3	1	2	5	6	9	7	4
4	2	5	3	9	7	8	1	6
1	8	9	7	4	2	5	6	3
6	5	7	9	3	8	4	2	1
3	4	2	1	6	5	7	9	8
2	6	8	4	7	3	1	5	9
5	9	4	6	2	1	3	8	7
7	1	3	5	8	9	6	4	2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어머니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걸까요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반듯해 주변사람이 고단

외유내강1004 남자 74년 8월 13일 음력 2시
여자 86년 3월 26일 음력 13시
여자 41년 3월 12일 음력 2시

Q 제가 34세에 어머님 성화에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고 물론 어머님이 원하는 타입의 여성을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몰라서 만난 거라, 불꽃처럼 탔다가 사라지는 인연이었나 봐요. 5년여 동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여 다른 남자를 알게 되어 혼 외자를 낳게 되었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현재 모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재혼을 한다면 지나온 잘못을 하지 않아야 겠지요. 부부 궁에 어머님이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지면상 상세한 답변이 부족하니 오늘이후 하나씩 늘 다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사가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틀어지는 인연 악연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도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기에 일체유심조라고 한 것입니다. 궁합은 서로를 향한 지나친 갈구를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나며 그것을 헤어짐 이별이라고 합니다. 재혼을 해도 배우자에게 항상 불만이 가득하여 가정에 시련이 많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여 과거 되새김으로 상대는 늘 공허하고 불편하게 되어 또다시 헤어지기도 합니다. '주는 사랑의 행복감'은 가정의 근원이며 다시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정말 과거 되새김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 할 것입니다. 결혼은 주변의 혈육과도 합의가 되어야 원만한 사이가 되는데 성격이 맞지 않거나 인연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들만의 노력으로만 결혼생활이 화목 할 수가 없겠지요. 귀하는 임수(壬水)생일이 8월에 태어나 태양빛이 비쳐 열매를 맺어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비가 축축이 내리는 형상이고 부인을 나타내는 재성(財星)이 절단(絶斷)이 되어 묘지로 들어가는 운으로 되어 있으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형(刑)을 당해 징징 우는 형상에 가정살림을 등한시하며 불편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백호살(白虎殺)이라 성미가 너무 반듯한 분이므로 외국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두가 인연(因緣)에 의한 것인데 인이란 원인을 의미하고 연 이란 결과를 낳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은 씨앗을 의미하므로 물, 온도, 햇빛, 토양 등 주변의 영향이 좋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5일 (음 4월 2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0년생** 멀리 내다보세요. **72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84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49년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61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85년생**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세요

50년생 여자를 주의하세요. **62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4년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세요. **86년생** 남자아이를 낳게 되며 아이가 약한 것이 흠입니다.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54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78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90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5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름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59년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7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길합니다. **83년생**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95년생** 사방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로 '두문불출'까지 해서야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국내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비해 6월 첫째주 연극 예매율이 40%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6월 예정됐던 지역축제는 줄줄이 취소 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가까스로 털고 일어난 공연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문화평론가이자 공연제작자인 이광호 대표와 나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연스럽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 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마크 로스코 전을 보고왔다고 합니다. 1903년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로스코는 미국으로 건너가 추상미술의 대가로 성공합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이 어두운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의 도구, 종교적 체험의 도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 높아질수록,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깊어질수록 내적 갈등을 겪였습니다. 결국 1970년 2월 뉴욕 작업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대표는 로스코 작품을 보면서 자살을 한 그의 선택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저 밑에서 요동치는 감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경험한 이런 문화적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놓치게 된 현실을 아쉬워 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태를 털고 일어난 공연계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공연제작 토대 자체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메르스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것처럼 손발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공연장은 무대·객석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뮤직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MF) 2015'도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UMF 주최 측은 행사 당일까지 티켓 환불을 해줬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완비해 청결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메르스 확산 우려는 없으니 걱정 말고 공연장으로 향하라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집 안에만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메르스 청결국가가 돼 공연장에, 식당에, 상점에 손님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취재원 보호가 보장되는 국가

기자 수첩
김 서 이
<사회부 기자>

"정부에 대한 메르스 관련 법적 대응은 저희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 문의해 보시죠."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당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자문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을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이다. 변호사 개인의 법적 의견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자칫 돌아오게 될 피해를 우려해서다. 익명이 보장된다해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취재원 비닉권'이란 방송사가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 취재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인 1896년 메릴랜드주에서 '방패법'이라는 취재원 보호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현재 35개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 한다. 미국 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적시돼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보호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명문화한 적이 있으나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의 직종에서 의뢰인이나 환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기자의 취재원보호권은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 등 민사·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해당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주장할 명분화된 법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권력 등 사회적 강자들의 비리나 부도덕성 등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인의 안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 취재원들이 기자들만 믿고 고발을 하기란 쉽지 않다.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법적으로 취재원 보호가 되지않아 사회적 고발이 마비된다.

권력감시는 자유로운 의견 피력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자유로운 의견 피력은 본인의 안위가 보장돼야 가능하다. 기자와 언론사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취재원 보호뿐만이 아닌, 명문화된 법으로서의 취재원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ICSID의 관할권은 생각보다 넓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고 알려진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재절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라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된다. ICSID 중재판정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피신청인인 국가는 본안에 대한 항변에 앞서서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CSID 협정 제25조는 관할요건과 관련하여 ① 관할권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② 법적 분쟁일 것 ③ 투자에서 직접 발생되는 분쟁일 것, ④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국민 간의 분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 조항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서 관할권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CSID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정과 투자협정 가입자체를 놓고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체약국의 의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관할권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사례를 보면 ICSID 협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권에 관한 서면합의가 요구되지만, Amco Asia v. Indonesia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관할합의에 엄격하고 의례적이며 특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SOABI v. Senegal 사건의 경우 SOABI는 Flexa라는 파나마 회사가 소유한 세네갈 회사인데 이 파나마회사는 벨기에 국민이 소유하고 있었다. 벨기에는 ICSID체약국이지만 당시 파나마는 ICSID 체약국이 아니었다.

파나마 회사를 소유한 벨기에 국민과 세네갈 회사인 SOABI 사이에는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체약국인 벨기에 국민의 SOABI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관계만으로도 ICSID 협정 제25조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짓 밟지만 않아도 다행인 권리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5월 사람들은 뉴스에 등장한 메르스에 시큰둥했다. 고열, 낙타, 중동 등의 단어가 생소했고, 또 다른 감기 정도로 받아들였다. 감염자, 확산, 격리 등의 소식에 접하면서 뭔가 있구나 싶었다. 곧 메르스 관련 병원 공개 불가 뉴스에 심상치 않은 현상이란 걸 확신했다. 그 후 두 주 만에 메르스는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 사태를 두고 사람들은 말했다. 내 진작에 이럴 줄 알았지.

핸드폰은 신용거래가 기본이다. 요금약정, 할부지원 등 모든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한 핸드폰이 할부금융사의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약정기간 내에 핸드폰 사용을 중단해도 할부금융사와의 거래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콜센터는 무식하다. 어디라 할 것도 없이 그렇다.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담원이 교육 받은메뉴얼 안에서 유효하다. 즉, 고객의 질문이 상담원 교육 시 포함됐던 예상 질의에 없는 것이라면 답변은 허무맹랑하다. 상담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지하다. 콜센터가 제3자의 손에 의해 쉽게 운영되는 탓이다.

메르스의 확산은 초기 발생 시 병원과 일부 사람의 인권을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무시한 대가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도 조기에 이 문제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핸드폰 사용 신청 시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당연히 통신사에 제공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의서란 걸 꼼꼼하게 읽어보는 소비자는 없다. 아니, 그걸 읽어보게 놔두는 서비스 제공자는 없다.

콜센터는 소비자에 대해 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 운영 혹은 전시용 운영으로 둘 바에야 폐쇄하는 게 낫다.

알권리는 사람이 스스로 선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본성에서 기인됐다. 대체 왜 우리는 타인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가. 아니다. 짓 밟지 않아도 다행인 권리겠다.

인 사

■ 교육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좌관 김대건 △일반직 고위공무원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이동호
■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부이사관 김기훈 △과장급 전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안창근 ▷〃 맞춤형농정과장 이수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조병임
■ 특허청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남성호 ▷창조행정담당관실 박상범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미옥 ▷상표심사2과 이귀화 ▷복합상표심사팀 이영권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김기홍 ▷복합디자인심사팀 이승무 △기술서기관 승진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천대식 ▷에너지심사과 유병철 ▷응용소재심사과 이상돈 ▷전력기술심사과 송병준 ▷자동차심사과 함중현 ▷약품화학심사과 신영신 ▷〃 유준석 ▷응용소재심사과 정다원 ▷차세대수송심사과 정흥영 ▷바이오심사과 조현경

SEMI PACK

세미팩여행이란? **패키지여행+에어텔여행**

세미팩여행은 편리하고 저렴한 패키지여행+자유로운 에어텔을 조합한 경제적이고 똑똑한 여행상품입니다

유럽 세미팩 - BEST -

영국과 프랑스 여행 8일
2,696,000부터
▶6월~9월 매주 월,화,목,금,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런던(3)-파리(3)-기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8일
3,458,000부터
▶6월~9월 매주 금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로자그레브-스플리트-두브로브닉-자다르-플리트비체-오파티아-블레드-류블랴나

스위스여행 ★융프라우 등반 6일
2,819,600부터
▶6월~9월 매주 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취리히-루체른-인터라켄(4)-베른
● 4인이상 출발 보장, 시내 위치한 호텔 투숙

남태평양 세미팩 - BEST -

괌 ★니코/아웃리거/웨스틴리조트 4일
725,400부터
▶7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괌(3) ● 럭키 7+시내관광+현지식 1회

사이판 ★마리아나 리조트 4일/5일
685,400부터
▶7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사이판(3/4)

팔라우 ★NEW 블루오션뷰 호텔 5일/6일
829,600부터
▶6월~9월 매주 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팔라우(3/4) ● 일급 NEW 블루오션 호텔 스탠다드룸
● 팔라우아일랜드+스톤머니+박쥐동굴 관광+중식 석식1회

동남아 세미팩 - BEST -

세부막탄 ● 세부(3/4) 4일/5일/6일
★J 파크 아일랜드 막탄스윗 가든뷰
824,100부터
▶6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리조트 식사2회 포함, 전신마사지 1시간 제공

나트랑 ★빈펄리조트 5일/6일
1,279,600부터
▶6월~9월 매주 수,목,토,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나트랑(3) ● 빈펄랜드 자유이용, 중/석식 리조트식

대만/야류 ★1일자유 4일
609,400부터
▶6월~9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지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대만(3) ● 1인자유로 나만의 일정만들기
● 오각선반레스토랑 샤브샤브 특식제공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1577-1212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6.12.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